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19 05 Vol. 529

아빠육아휴직으로 워라밸을 실천 중인 허승완 님

Contents



테마이야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워라밸을 위해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06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변화시켜 워라밸에 이르는 법

10 맞춤 솔루션

워라밸 제도로 일과 생활 두 마리 토끼 잡기

14 人 스토리

아빠육아휴직으로

워라밸을 실천 중인 허승완 님



노동 현장과 정책 이야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18 중장년 희망일터

평생 몸담았던 은행에 새롭게 재취업한 김영대 님

22 청년 불패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취업 성공, 조기현 님

글로벌일자리박람회를 통한 해외취업, 윤희경 님

26 기술의 힘

(주)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

30 정책 돋보기

2019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 이렇게 사용됩니다

34 정책 수첩

우리 사회 일터가 달라지고 있어요

38 잡툰

내일개발산업의 사내 호칭 공감

40 이슈 현장

42 고용노동 뉴스



상생협력, 가치창출,
미래성장 이야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46 같이의 가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주)청밀

50 해피 트게더

초과근로 줄이고 보편적 복지 늘린 (주)루멘스

54 하우투 워라밸

주 4.5일 근무제로 일과 생활의 균형 잡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

58 노사형통

소통창구로 노사 간 벽을 허문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

62 일자리 가이드

취업·일자리 박람회 툽아보기



64 내일 직업 사전

환경 분야 新직업

68 SOS 고민 상담소

토지연금 가입 외



여가생활 이야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70 옛 직업을 찾아서

극장간판제작원

72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가정의 달 추천 콘텐츠

74 동의業보감

직장인들의 흔한 허리병, 요통

76 스마트 재테크

가입된 보험 다시 살피기

78 내일스타그램

우리 회사 창밖 풍경, 함께 감상해요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5월호 <내일>

통권 강남 리00389(통권 529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흰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qline.co.kr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독자 맞춤 칼럼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일

내 아이와 함께하는
워라밸을 위해
아빠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행복한 일터를 위한
워라밸 제도를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새로운 분야로
꿈을 펼치고 싶은
취업준비생이라면?



‘**인스토리**’를 통해 아빠육아휴직 전 나와 아이를 위한 행복의 시간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빠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멋진 계획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우투 워라밸**’의 행복한 일터를 소개합니다. 직원들의 월요병을 타파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엔 10시 출근, 병원이나 은행 등의 개인 볼일을 위해 매주 금요일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근로자 관점의 워라밸 일터를 찾아가봅니다.

‘**내일 직업 사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환경 분야 직업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한 직업인 가정에코 컨설턴트를 만나봅니다.

2019년 5월 이야기

행복의 근원
‘가정’의 달을 맞으며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처럼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 붙여진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특별한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굳이 이날이 아니어도 1년 내내 마음으로 고마운 분들이지만 특별히 5월만큼은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라는 의미가 아닐는지요. 한 마디로 ‘멍석’을 깔아준 셈이지요.

5월의 <내일>에는 워라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워라밸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 동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참 멋지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체를 본 사람은 없는 전설 같은 ‘워라밸’. 열심히 입으로는 외쳤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워라밸 실현이 가능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 나의 일하는 방식, 나의 업무환경 등을 돌아보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 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워라밸의 기회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글 안성민(<하우투 워라밸> 저자)

나를 변화시켜 워라밸에 이르는 법



‘나’를 돌아봄

내 몸의 낭비
에너지 줄이기

오늘 저녁도 분명히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또는 “아…,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매일 밤 똑같은 말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분석하고, 도표화하고,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을 종종 하는 당신, 아주 잠깐만, 그저 십 분 정도만 짬을 내어 당신의 에너지도 회사 일처럼 분석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래 표처럼 단순하게 자신의 일상을 몇 단계로 구분해보고, 이를 통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핵심문장’을 도출해 내는 것,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떠한 핵심문장이 도출되었건 하루하루 실천해 본다면 당신은 워라밸을 해내기 위한 기준에는 없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1**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로 구분하기
- 2** 5~6개 내외로 에너지가 쓰이는 항목과 비율을 작성하기
- 3**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이유를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 4** 2단계에서 분석한 에너지 비율을 목표에 따라 재조정해보기
- 5** 재조정을 위한 방법 또는 재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 정리하기

<하우투 워라밸>
저자 안성민의
조언





“워라밸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
잠시 업무를 접어두고
멍 때리기 한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번아웃이 만드는 일·생활의 불균형 일 속에서 휴식 갖기

일과 삶의 불균형한 모습을 대표하는 번아웃(burnout)증후군은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신체나 정신 모두에 극도의 피로감이 쌓이고, 무기력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번아웃 증상이 오면 오히려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짜증과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번아웃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창한 워라밸 계획도 좋지만 일터 속에서 자신만의 휴식으로 작은 워라밸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혹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멍 때리는 과학적 용어로 ‘무자극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모드가 되면 평소 잘 활용하지 못하는 창의와 욕구, 본능과 관련된 뇌혈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넋 놓고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아!’ 하고 새로운 기억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지요. 멍 때리기, 이는 뇌의 최적화를 위한 정리 시간임과 동시에 생산적인 활동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일 잘되는 업무환경 따로 있다 행동유도성 활용하기



어떤 두 집단의 모니터 배경화면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각기 다르게 설치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채점 결과 빨간색 배경화면에서 문제를 푸 집단은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를 잘 수행했고, 파란색 배경화면에서 문제를 푸 집단은 ‘창의적’인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합니다. 즉 각각의 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 서로 영향을 끼친 것이지요.

어떤 물체, 이미지, 혹은 모습 등이 사람에게 있어 본능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힘을 행동유도성(Affordance)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있는 벽면에 낙서하고픈 충동, 귀여운 곰돌이 인형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인형의 촉감을 느끼기 위해 한번 쓰다듬는 행동 등도 바로 이 행동유도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유도성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업무환경을 둘러봅시다. 내가 좀 더 생산성 높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 방해를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혹시 책상이 지저분하자는 않으신가요? 업무환경의 조명은 적절하신가요? 일하고 있는 시간임에도 스마트폰이 내 눈앞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이 일에 몰입함에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들, 지금 바로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우투 워라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시도해볼 만한 작은 변화들로 워라밸을 가깝게 안내해주는 워라밸 입문서. 단순히 ‘칼퇴근’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찰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저자 안성민 박사는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신세계그룹에서 MD로 일했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통들의 삶’을 글로 쓰며 주요 저서로는 <하우투 워라밸(일과 삶의 적정온도를 찾는 법)>, <미세유행 2019(트렌드를 아는 것이 트렌드가 아닌 시대)>, <생계형 인문학(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비상구)> 등이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강의,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워라밸 제도로 일과 생활 두 마리 토끼 잡기

워라밸 기반 잡는 근무 혁신
워라밸 실천 위한 제도 활용

점차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워라밸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워라밸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업무 효율화 방법과 사업주 혜택, 그리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워라밸 제도를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1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행복해지는 근무 혁신 방안

Q.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19년 근무 혁신 인센티브는 근무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심사·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개선기간(3개월)동안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근무 혁신을 이행한 후 초과근로, 유연근로,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일터혁신 컨설팅 우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워크넷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 마크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접수는 2차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 혁신 10대 제안은 무엇이고 근로자의 워라밸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으로 업무하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근무 혁신 10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일하는 방식 바꾸기, 일하는 문화 바꾸기를 위한 총 10가지 제안인데요. 회사에서 야근이 지속되고 일에 밀려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업무 효율화는 떨어지고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의 개인적 삶도 보장되지 못하니 워라밸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위 근무 혁신 사항을 차근차근 실천해간다면 사업주는 업무 효율화로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워라밸 제도를 계속 도입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 혁신 10대 제안

01. 정시 퇴근하기
02.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03. 업무집중도 향상
04. 똑똑한 회의
05. 명확한 업무지시
06. 유연한 근무
07. 똑똑한 보고
08. 건전한 회식문화
09. 연가사용 활성화
10.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2 노동시간 단축과 효율적 선택이 가능한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로제

Q. 주52시간제에서 휴일 근로 시간도 포함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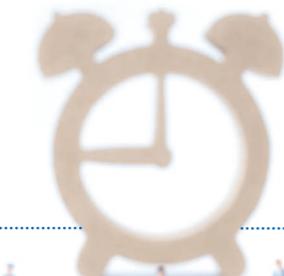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가 바로 주52시간제입니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지만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근로시간특례 5개 업종 제외). 노동시간 단축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52시간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Q. 업무 특성상 오후에 일이 몰려 야근을 자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보세요. 유연근로제란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하는데요. 총 5가지의 유연근로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면 기존의 소정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제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제도 역시 거주지나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로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복한 가정, 아빠와 아이를 위한 아빠육아휴직제도

Q. 맞벌이 부부인데 엄마가 이미 육아휴직을 냈는데 아빠도 낼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회에 한 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엄마 또는 아빠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다른 한 배우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기보다 순차적으로 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Q.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것인가요?

먼저,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80%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 일괄지급합니다(이른 바 '사후지급금' 제도). 이에 반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이 250만원이며 3개 월간 최대 7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전해온 온 가족의 워라밸

아빠육아휴직으로
워라밸을 실천 중인
허승완 님

든든한 가장이자 아이의 친구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아빠, 얼마 전 아빠가 된 허승완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육아휴직인데요. 가족과의 더 많은 시간으로 행복한 아빠가 된 허승완 씨를 만나봅니다.

글 조영아 / 사진 박성훈

아빠로서 누리는 행복, 아빠이기에 해내는 육아
결혼 후 생긴 11개월 된 아이를 위해 약 7년간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낸 허승완 씨는 요즘 가족과 소중한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이가 엄마·아빠와 눈을 마주하며 함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한참 늘어가는 아이의 재롱도 부부가 함께 보며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질 때쯤 허승완 씨는 아빠육아휴직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맘때 보는 재롱으로 평생 받을 효도를 다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빠로서 육아의 행복도, 육아의 고충도 몸소 느끼고 싶었고 육아의 전반적인 시간을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아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줘 부담감을 털어내고 아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장을 위해 아주 잘 한 선택이었고 아내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빠육아휴직제도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활용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허승완 씨는 육아휴직을 결심할 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가 풍부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온 가족이 그 안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 한 달 동안 도시를 떠나 바다와 숲이 있는 제주도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구해 머물며 아이와 손잡고 바다와 숲 등 자연으로 매일 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 모습을 아내와 함께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있어요. 진정한 워라밸을 실천하는 중이에요. 아빠육아휴직제도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가 있어서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었어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 과감하게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빠와 아이의 유대감 형성이 부족한 요즘 같은 때 아빠육아휴직은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되찾게 해준다고 전하는 그는 주변의 다른 아빠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권리

아빠육아휴직제도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을 한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승완 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 첫 석달을 포함한 4개월동안 아빠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8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아이의 등원도 돋고 육아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아빠들이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일을 하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나 가버려 속상해합니다. 저 역시 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얼마나 자주,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봅니

다. 아내와 내 아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의 완벽한 행복입니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평범한 보통의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저의 목표지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잊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평화로운 자유를 맘껏 누리고 싶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추억 만들기를 하고 있는 허승완 씨와 그의 가족 곁에 머무는 제주의 봄 날도 아이의 눈동자처럼 반짝입니다. 훗날 아이가 앨범을 넘기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때 친구 같던 아빠의 모습에 빙그레 미소를 짓겠지요?



| 아빠 워라밸을 위한 허승완 씨의 똑똑한 제도 활용법 |



아빠육아휴직 기간 1년

- 제도 이용 첫 4개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 남은 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은행원 30년, 은행원 후배들의 경력 컨설턴트가 되다

평생 몸담았던 은행에 새롭게 재취업한 김영대 님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던가요? 김영대 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퇴직 전 아직 자리가 예정돼 있던 터라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했지만 예정됐던 이직이 어긋나면서 커다란 심리적 부담과 고민을 안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은행원 후배들에게 똑똑한 퇴직을 안내해 주고 있는 김영대 씨를 만나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퇴직 후 재취업 실패 막막한 퇴직생활의 시작

김영대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경영컨설ティング센터는 은행 퇴직을 앞둔

재직자 혹은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가 이뤄지는 곳이지요.

“2018년 11월 제2대 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직과 창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관한 구직 전략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농, 자산 관리 등 퇴직 후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김영대 씨 자신은 퇴직 전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퇴직과 함께 이직이 예정돼 있었던 터라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한 상황에서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이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터라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60세에 퇴직할 거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중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가장으로 서 통장의 잔고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압박이었으니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친구가 소개하는 에너지절감 사업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8개월이 다 지나고 나니 마음이 더 조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인생3모작 프로그램으로 ‘강사’ 방향 잡고 전력투구

직자들을 위한 금융 특화 전직 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김영대 씨는 경력컨설팅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 강사로서 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금융전문강사과정을 마치고 강사로 현장 경력을 쌓으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고 있을 때쯤 지금의 경력컨설팅센터장 제의가 들어와 잠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금융전문 강사로서 입지를 다져놓은 것이 그만큼 값졌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외에는 강의 의뢰가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강사로서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지 강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곳이 아니기에 제 스스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야 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처음 강의 기회를 마련해 준 곳이 노사발전재단 광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였고 김영대 씨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을 누비며 6개월간 그의 강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사 모집’이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발견하면 무조건 지원했어요. 그러나 경력이 일천한 강사를 불러주는 곳은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퇴직 전 6시그마 MBB 등 7개 자격사항을 가지고 있던 제가 2018년 8월에는 공무원연금 미래설계 강사 등 24개로 늘어 이제는 31개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속절 없이 시간만 흐르던 중 김영대 씨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가 다닌던 은행에 새롭게 오픈한 경력컨설팅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퇴



믿고 찾는 경력컨설팅센터장, 그리고 1% 명강사의 꿈

강의 준비를 하고는 몇 시간씩 걸려 지방 강의를 다녀오느라 하루 3~4시간 밖에 자지 못했지만 받는 강의료는 회당 4~5만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서울시 평생학습관련 아동청소년경제지도사양성과정 강사 모집에 선정되어 회당 15만원의 강사료를 받으며 활동했고 계속해서 강의처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성인 대상 70여 회 이상의 강의를 하고 강의료도 20만원, 30만원으로 조금씩 올라 2018년 8월에는 96만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강사 시절 베테랑 강사의 ‘100만원 강사료’ 얘기 를 듣고 꿈을 가졌는데 강사로 나선 지 1년여 만에 그 자신도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퇴직하기 전 1년의 준비는 퇴직 후 5년의 준비와 맞먹습니다. 퇴직 전 본인의 현재와 경력관리, 경력설계를 해보고 희망 직무 관련 3개 정도의 자격증 취득을 권합니다.”

준비 없이 퇴직한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경력컨설팅센터에서 후배들의 퇴직 준비를 살뜰히 챙기고 있는 김영대 센터장의 또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퇴직자들이 스스로 찾는 센터를 만들고 여러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기관도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김영대 씨는 중장년 경력관리에 관한 책을 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회당 100만원이 아니라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받는 상위 1% 명강사의 꿈도 있습니다. 경제자서전 전문 강사, 전문 면접관, 창업 전문가도 자신의 경력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은 김영대 씨의 인생3모작은 여전히 푸릇푸릇한 봄입니다.

전략적 로드맵과 취업 집중 트레이닝으로 목표기업의 문을 활짝 열다

로드맵 작성 후

취업희망자끼리 정보 교환

국내 굴지의 식품 제조업체에 입사한 조기현 씨는 신선조리팀 조리냉동파트에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와 가동을 맡아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갈망이 커던 만큼 잘 해내고 싶은 욕심도 큽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그는 누구보다 취업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1학기에 열린 대학일자리센터의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선배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뇌리에 남았습니다.

“선배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대학일자리센터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 찾아가 취업 준비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추천해주신 것은 ‘산업맞춤형 동아리’였습니다.”

산업맞춤형 동아리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목표기업을 정한 뒤 그 회사 입사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동아리는 같은 계열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로 다시 세분화되어 효율적인 취업스터디가 가능했고 그 외에도 총 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차고 뿌듯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취업’ 이상의 것을 얻게 한 취업 집중 트레이닝

조기현 씨는 4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집중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마음자세부터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목표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나아갈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함을 깨달은 그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컨설턴트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요령뿐만 아니라 기업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회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단계별 프로그램을 밟으며 대학일자리센터와 함께 준비했던 대로 입사 역시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의 각 과정마다 신중했고 마침내 희망하던 기업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목표를 이룬 그는 요즘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입사 후 앞으로 3단계에 걸쳐 성장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에는 실수를 ‘최소화’하여 업무를 증진하며 입사 후 3년 이내 업무를 ‘최적화’시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입사 후 5

년 이내 관리자가 되어 업무의 ‘체계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목표를 만들고 단계를 설정해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조기현 씨, 이제 자신의 목표에 맞게 로드맵을 그려낼 줄 아는 그는 그동안의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취업 이상의 것을 얻어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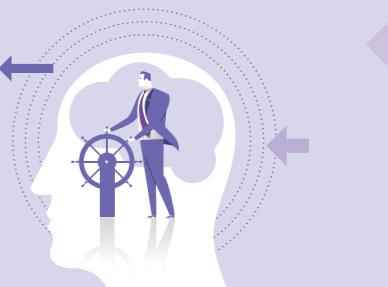
조기현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대학일자리센터의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최종 목표에 이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다보면 가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로드맵을 꺼내 보시면 다시금 목표가 명확해지고 의지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 충남도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충남도립대학교 전기전자과 졸업반(조기 취업)
- 대학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해 취업 성공



월드잡 취업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인재 글로벌일자리박람회에서 '인생회사' 만나다



해외취업의 문이 되어준 글로벌일자리박람회

일본 도쿄에 위치한 건축회사에서 건축설계자로 일하는 윤희경 씨는 요즘 행복한 나날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 그야말로 일할 맛 나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이죠. 이곳으로 오기 전 그녀는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했습니다. 지방대학 졸업자로서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기 위해 일본으로 교환학생, 인도 장기 봉사 등의 대외활동과 일본어, 중국어, 토익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들었지만 취업 후 업무환경이 생각과 많이 달라 고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때, 한 취업전문회사로부터 해외취업의 의향이 있느냐는 연락이 왔어요. 해외취업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화를 받고 해외취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희경 씨에게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글로벌기업이 참여해 해외취업의 길이 되고 있는 '글로벌일자리대전' 행사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그녀가 일본 교환학생 시절 참가했던 공모전의 주최사, 즉 현재 그녀가 다니는 건축회사도 참가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글로벌일자리대전을 통해 기업과 본인이 잘 맞는지 점검해보고 취업에 결심이 섰다는 그녀는 면접 후 입사에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의 역량을 키워준 취업 프로그램

해외취업 역시 국내취업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치릅니다. 윤희경 씨의 경우, 학교에 다니며 일본어 실력을 쌓고 식견을 넓히기 위해 일본 교환학생 경험을 갖는 등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덕분에 글로벌일자리박람회에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기업이 참여하였을 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요.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설명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월드잡(www.worldjob.or.kr)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했고,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일본의 기업 문화나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해외취업은 국가에 따라 취업 준비과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취업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윤희경 씨는 여러 해외취업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보를 모으고 자신의 적성과 꼭 맞는 기업을 찾아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며 해외취업의 기회에 바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윤희경 씨의 해외취업 사례는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한 이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윤희경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TIP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진행하는 이력서 첨삭 서비스와 해외취업 정보를 적극 활용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는 수업에 집중하였지만, 방학을 하면 학교와 월드잡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기다 보면 어느 새 해외취업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 2019년 글로벌일자리대전은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 글로벌일자리박람회와 월드잡의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 활용
- 일본 건축설계 분야 취업 성공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주)에스앤디이엔지의 어재동 대표는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성실함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최연소 기계가공기능장을 뛰어넘어 기술사, CEO, 교수 등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이룬 어재동 대표는 ‘100년 기업’이라는 꿈을 위해 인재육성의 꿈을 키우며 어제도 오늘처럼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글 임혜선 / 사진 스튜디오J

최연소 기능장, 교수 꿈 이루고 100년 기업 비전 세우다

포스트 프로세스 정밀가공 전문기업
(주)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



매일 주어지는 하루, 매일 쌓여가는 기술력

올해 창업 14주년을 맞이한 (주)에스앤디이엔지는 포스트 프로세스 정밀가공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가전제품의 내외장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의 5%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만큼 다양한 특허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 기업 제품의 내외장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공하기 어려운 항공용 알루미늄 두랄룸의 표면처리에도 성공하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사양 MP3의 외장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기업과 계약을 맺어 명실상부 알루미늄 표면가공 분야의 선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업 14주년을 맞은 (주)에스앤디이엔지는 기업의 나이로 보면 이제 막 자리 를 잡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사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중견 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재동 대표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목표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목표를 세웠죠.”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지만 어재동 대표는 그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재동 대표의 기본자세이자 무기가 되었고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 비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연소 기능장에서 명장의 꿈을 갖기까지 이어온 기술 사랑

꿈을 성취하면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는 어재동 대표의 '첫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첫 번째 꿈은 기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들어간 성남직업훈련원 금형과에서 그는 입학 한 지 1년 만에 기계조립기능사, 연삭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술자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자로의 경력을 착실히 쌓아가며 야간에는 수원과학대학 금형설계학과에서 기능장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 24세의 나이에 최연소 기계공기능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재동 대표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능장이 되고 나니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당시 사촌형이 기술사자격증으로 대학 교수에 임용됐는데 형을 보며 기술을 배워 저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재동 대표는 교수가 되기 위해 기술사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사업가의 꿈을 이루고자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에스엔디이엔지가 탄생하고, 사장이 된 그 해에 기술사에도 합격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제조공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능장, 기술사, 사업가, 교수라는 꿈을 차근차근 성취한 그의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명장에 지원한 그는 9월에 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어재동 대표, 그는 이미 '도전의 맛'을 아는 꿈의 사람입니다.

인재 육성으로 이어진 새로운 꿈

기술자로서, 또 CEO로서 어재동 대표의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바로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어재동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직무 표준능력(NCS)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직무표준능력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사 내 부서별로 공통적인 핵심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한 어재동 대표는 이에 맞춰 인재를 교육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준을 기준 삼아 100년 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NCS를 도입한 후 매출은 두 배 가량 늘어났고, 첫 자사 제품인 휴대전화 거치대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스스로 주경야독의 자세로 능력을 쌓아온 어재동 대표는 인재 육성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이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듀얼공동훈련센터와 손잡고 2014년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인생의 20년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다는 그의 마지막 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후배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새로운 꿈, 「내일」도 함께 응원합니다.

6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 이렇게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이 4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5.2%인 1조 3,928억 원 규모인데요. 이 추경예산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미세먼지에 대응한 마스크 지원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꼼꼼한 사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2019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은 청년, 신중년, 여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일자리 지원 강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인원이 3만 2,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2,883억 원이 사용됩니다.
- **해외취업 청년의 현지정착 지원** 총 24억 원이 배정되며 1,000명의 해외취업 청년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 창출로 총 6,000명에게 24억 원이 지원됩니다.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폴리텍대학 특화 훈련과정의 550명에게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대상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취업성 공패키지'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하기 위해 232억 원이 사용됩니다.
- **장애인 고용증진**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안전망 확충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구직급여는 당장의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터를 찾고 다시금 신발끈을 고쳐 끊을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안 8,214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지원 인원도 10만 7,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체불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 대상자 역시 1,400명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88억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추경예산안이 사용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에 7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900건 이상의 컨설팅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더 많은 사업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업훈련 지원 확대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돋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551억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2만 1,000명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또한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금도 증액 편성되고 추가 예산 70억 원으로 1,900명의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폴리텍대학 2개소에 구축되는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통해 관련 인력 양성 지원에 30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취약 노동자 건강보호

최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보호에도 추경예산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원에 5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작업하는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보급에 32억 원의 예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향후 648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예산안 1조 3,928억 원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알뜰살뜰 사용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더 좋은 일자리, 더 쾌적한 노동환경으로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 일터가 달라지고 있어요

차별의 폭 좁혀지고 사회보험가입률은 오르고

고용환경에 존재하는 불평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 격차, 근로 복지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이 있겠지요.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좁혀지고, 임금노동자 상·하위의 임금 격차 역시 더 좁혀지는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별의 문턱은 낮아지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일터가 되어가는 긍정적 변화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 조사 대상: 임금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 3만3,000개 사업체, 97만명 근로자
정리 편집부

정규직·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격차
31.7%



<최근 5년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추이(%)>



2018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8.3%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전년(69.3%)에 비해 1.0%p 낮아졌지만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여 노동시간 증감으로 인해 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4%)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올랐어요!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94% 이상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은 '18.6월 기준 19.0%로 전년보다 3.3%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또한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임금 격차는 축소되어 2018년 6월에는 4.67배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임금 불균형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업무 중 상해나 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사회보험인데요. 2018년 6월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고용보험 2.1%p, 건강보험 1.4%p, 국민연금 1.6%p 상승하여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는 전년에 비해 모두 축소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4%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3~73%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는 점도 안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상하위 임금의 격차가 좁혀졌어요!

저임금근로자
비중 19.0%
임금근로자 상하위
20%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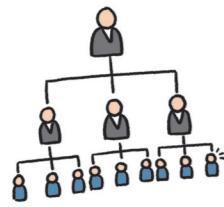
4.67 배

상여금·노동조합 가입률은 하락했어요!

비정규직 중 상여금을
받는 기간제근로자
44.1%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2.7%,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요.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4.1%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보였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0.1%p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는 46.4%, 기간제근로자는 45.6%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8.8%p, 1.6%p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개발산업의 사내 호칭 공감

그림 정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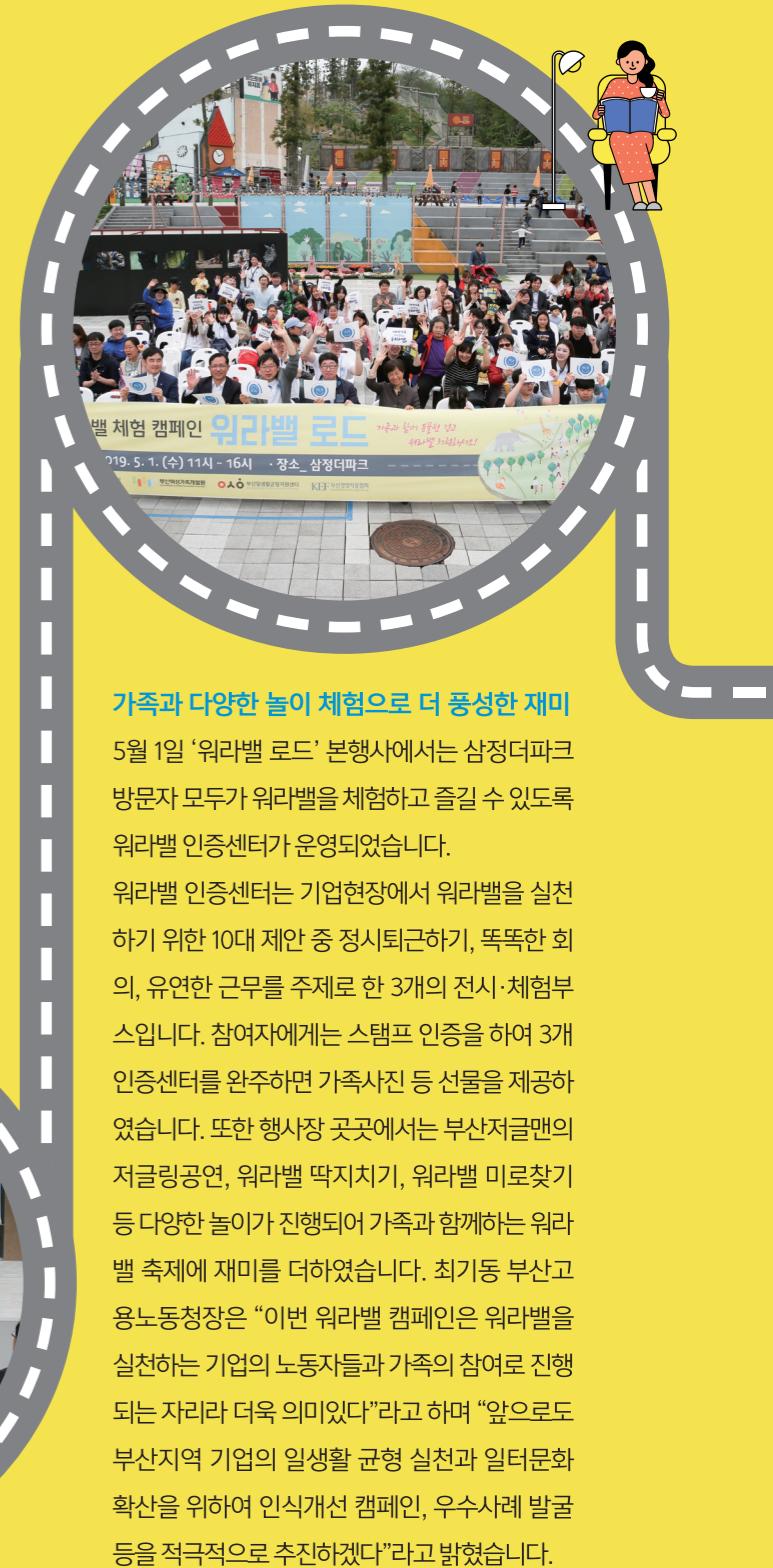
근로자의 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워라밸 로드’ 개최

“가족과 함께 동물원 걸으며 워라밸 체험해요”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일생활 균형 대시민 캠페인 ‘워라밸 로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 온라인 이벤트 응모자 300명과 워라밸 우수기업 노동자 200명을 초청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워라밸 체험 캠페인으로 개최되어, 동물원 내 워라밸 길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메모보고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업무가 줄어 자연스레 정시퇴근을 추구합니다”, ▲일생활균형상(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정영수 “아기가 아플 때 병원영수증 제출하면 휴가를 쓰게 해줘요” ▲일생활균형상(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유중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서약을 받아요” 등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 개최

주52시간제 안착 위해 현장 목소리 경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주)용남고속(수원)을 방문하여 경기지역 노선 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특례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노선버스업종도 특례제외 업종에 해당)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경기도 지역 노선버스는 격일제·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3개 업체는 올해 7월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유지 및 1일 2교대제로의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 등을 검토·추진 중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서울 지역 운전기사들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더 낮은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버스운전 경력자 등 적정 인력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노사 관계자들은 요금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고용 노동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노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유공자 훈장 16명, 포장 17명 등 총 203명 영예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간부 등에게 상을 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 총 203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훈·포장 등 수상자 37명과 가족을 포함하여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현대제철(주) 포항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준 기장이 받았습니다. 은탑산업훈장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과 SKC(주) 정성환 대리 등 2명이 받았습니다.

올해 수상자 203명 중에서 여성이 30명으로 14.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한국마사회 김희숙 발매반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부산여객 자동차(주) 박나연 운전기사가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고 그 외에 눈길을 끄는 수상자로는 삼성중공업(주) 이민호 기장(철탑산업훈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길우 팀장(산업포장), (주)포스코플렌텍 박정수 과장(국무총리표창) 등이 있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치하하며 “수상자 분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신 존경스럽고 소중한 모습들을 본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부포상 356일 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www.moel.go.kr/participate/posang/posangList.do)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선물하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주)청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활동할 에너지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먹고 나누는 행위는 중요하고, 또 행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2018년 우수사회적기업 (주)청밀은 음식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청밀의 '같이의 가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글 임혜선 / 사진 스튜디오J



일자리창출 기업의 정체성을 이어가다

(주)청밀은 식자재 유통 전문 사회적기업으로서 2009년, 풀무원 푸드마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조리하기 편리하도록 농산물을 세척하고 다듬어 포장하는 농산물전처리센터를 개관한 후, 취약계층을 고용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식자재사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유통사업, CSR 스토어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현재 (주)청밀은 월 450t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관공서,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약 160곳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고용인원의 30%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창립 10년이 지난 지금도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은 (주)청밀의 자랑이지요.

편견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다

(주)청밀은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하기 전 장애인복지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고용 전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주)청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직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그에 걸맞은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인연으로 일한 지 9년이 넘어 2008년에 설립한 (주)청밀과 역사를 함께한 분도 있다고 해요.

“초기에는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함께 고용해 발달장애인과 다른 직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회사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데 앞장선 지금, (주)청밀의 직원들은 장애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노인, 일반인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함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밥처럼 따뜻한 사회를 꿈꾸다

(주)청밀은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기업 간 MOU로 다양한 사업에 협력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인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와의 MOU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은 사회적기업 간 상호거래만으로 약 3,300만 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양창국 대표는 기업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한 명의 장애인이 세상에 나오면, 그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청밀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통해 ‘나도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 건강한 행복을 전달하는 (주)청밀. 그들이 실천하는 나눔으로 우리 사회가 갖지은 밥처럼 따뜻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주]청밀

(주)청밀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돋기 위해 지역 치과와 협약해 치과의료를 지원합니다.



이음프로젝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시설 생 산품을 구매하고, 이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후원합니다.



해외 학교 짓기 MOU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드림스드림 MOU를 맺었습니다.

선택적 노동시간제로 노동시간 단축의 해답 찾다

초과근로 줄이고 보편적 복지 늘린
(주)루멘스

| 주52시간제 앞두고 장시간근무로 속출 고민 |

TV·자동차·조명용 LED 등을 개발해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주)루멘스는 2004년에 설립하여 LED 분야 글로벌 'Top10'에 진입할만큼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불철주야 연구·개발에 매진한 덕분에 이룬 결실이었지만 당장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회사의 고민이 있었다고 경영지원실 인사팀 손상모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근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루멘스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 장시간근무를 개선하게 되었고 임금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변경되는 제도를 설명해야 했던 조아라 대리는 도입된 제도에 대해 임직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는 (주)루멘스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구성원 중 약 25%의 인원이 주60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루멘스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그 고민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비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루멘스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를 함께 만나보시죠.

정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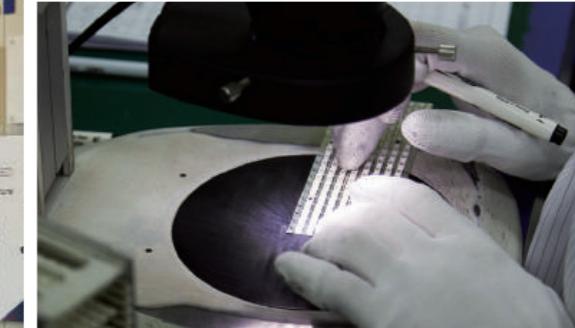
6

직원들에게 변경되는 제도를 설명하려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데, 저 또한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해 반응이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6

월통신비 전직원으로 확대, 카페테리아 쿠폰 지급, 주1회 특식 등과 함께 교통비 대신 야근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상황 설명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장시간근로 개선할 해법이 된 선택적 노동시간제 |

해외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시간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루멘스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자동차용 조명, 특수 기능성 LED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일본, 미국, 유럽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외법인들과의 시차로 장시간근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결방안으로 선택적 노동시간제가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기반으로 하여 간주노동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부수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죠.”

(주)루멘스는 2019년 1월부터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 및 시행을 주도한 경영지원실 인사팀의 손상모 차장은 직원들이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초기여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린 점심 먹고 _____ 퇴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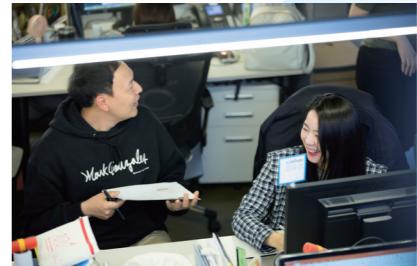


주 4.5일 근무제로
일과 생활의 균형 잡은

—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주)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은행이나 병원 등의 개인적 볼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봐도 그 시간엔 사람이 몰리니 조급한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이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온라인 종합광고대행사인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는 주 4.5일 근무제로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여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워라밸 관련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창의적 업무와 근로자 행복을 위한 고민

회사 이름에서부터 평범치 않은 분위기를 내뿜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획·실행력이 요구되는 DB 사이언스 분야 온라인 종합광고마케팅 전문기업입니다. 서울 이태원동의 경리단길 언덕 위에 위치한 사무실은 일반적인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직원들이 창의와 혁신이 강조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환경, 개인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야 한다고 인사총무팀 박민지 씨는 설명합니다.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직원들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지금과 같이 다양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기업 못지않은 워라밸 제도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의 워라밸 실천 계획은 ‘회사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주 4.5일제 근무제는 이런 고민을 통해 탄생했지요. 매주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어 평일에 봐야 하는 개인적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엔 꽃꽂이, 목공, 프랑스 자수, 구기, 텃밭가꾸기, 보드, 프라모델 등을 주제로 직원 참여율 90~95%에 이르는 동호회 모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회사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부모 직원들은 아이의 등원 또는 등교를 함께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퇴근으로 개인이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습니다.”

출근시간은 9시와 9시 30분 중 선택이 가능하여 9시 30분에 출근하는 직원이 전체의 60%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개인 형편도 맞추고 출퇴근시간의 복잡한 대중교통도 피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출근으로 직원들의 ‘월요병’을 방지하고 있다니 가히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배려입니다.



함께 행복한 일터, 함께 일하는 기업

회사 인사총무팀은 워라밸 제도 마련과 함께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직원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부부를 위한 유치원 설립,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리프레쉬 휴가’ 혜택 등을 시행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사소한 변화일지라도 꾸준히 시행하여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워라밸 제도를 운영해나갈 방침입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는 더불어 사는 행복을 위해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훈훈한 활동도 함께합니다. 업무 이외의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회사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장시간근무 관행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바꾸기로 분류된 고용노동부의 근무 혁신 실천방안은 조금만 타 직원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가능한 일로 워라밸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실천사항이지요.”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족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 오늘도 직원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일터로 출근합니다.

Mini Interview



서비스전략팀
—
이정은 팀장

20개월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해야해서 남들보다 30분 늦은 9시 30분 출근은 제게 엄청난 의미였어요. 시차출퇴근제가 없었다면 더 이른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거나 제가 매일 지각을 해야 했을지 모르죠. 아마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저를 볼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은 가정 속에서 엄마와 아내로서의 모습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일하는 제 모습이거든요. 개인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함께 지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통창구 ‘COCC’로 노사 간 벽을 허물다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화장품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을 생산·수출하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하여 지난해에는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할 만큼 체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직원은 회사를 생각하는 노사형통 기업,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글 임혜선 / 사진 스튜디오J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는 소통의 창구, COCC

노사간 화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겠죠.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에는 ‘COCC’라는 것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직원들과 경영진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COCC란 ‘CTK(씨티케이) Open Communication Center’의 줄임말로,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만의 개인 고충 수렴 창구입니다.

“COCC는 특별한 날짜나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수시로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메시지나 메일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경영기획팀 우호택 과장의 설명처럼 COCC는 직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경영진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적인 고충 해결과 조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해도 직원이 60명 안팎이라 업무도 개인 SNS 메신저를 활용했는데 COCC를 통해 이것이 개인적 삶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임원진과의 전사회의에

서 앞으로 개인 SNS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50명이 단체 채팅방을 다같이 후련하게 나가기도 했죠’ 경영기획팀 윤재희 주임은 COCC의 사례를 소개하며 COCC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직원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한 직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으로 진행하고 논의의 과정도 최소화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죠. 회사의 배려가 느껴지지요?



체감되는 복지로 이루는 일과 생활의 균형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인재 육성입니다.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의 교육훈련비 예산은 2016년 250만 원에서 2018년 8,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될 정도로 직원들의 직무 능력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직무에 과도하게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적정한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직무전환제를 도입하고,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보상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35만 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자격증 취득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본인 결혼 시 결혼식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혼여행과 출산 축하금으로 200만 원, 월 2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비도 한 학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의 복리후생제도가 대기업 못지않지요?



복리후생은 곧 경영진의 언어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2001년에 설립한 젊은 중소기업입니다. 기획부터 제품 생산까지 화장품 개발을 하며 꾸준히 성장한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지난 2016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을 올리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이 비약적인 성장의 이유를 다름 아닌 ‘직원’에게서 찾고, 작은 것부터 직원들에게 돌려주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직급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 수준을 23.1% 인상한 것도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결과지요. 이 외에도 노사 간의 소통을 위해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한두 달에 한 번은 대표, 임직원이 모두 모이는 전사회의를 진행하고 매년 한번 국내외 워크샵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안건들을 토론합니다. 이렇듯 회사 내 중요한 결정에 전직원이 참여하니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도 남다릅니다. 올 연말, (주)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서울 서초구로의 이전을 계획하며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의 성장을 뛰어넘는 노사 간 화합으로 모범적 성장의 기업 사례로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Mini Interview

경력단절 이
걱정 대신 내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IR팀 김은혜 대리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입사해 복지제도에 아쉬운 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가 너무 많아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커리어와 결혼생활 둘 다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듭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품기획팀 김동민 사원

저는 화장품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입사했지만 3개월 동안 제품부터 제품이 고객에게 가기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장한 느낌이에요. 우리 회사는 직원을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성장시켜주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취업·일자리 박람회 토아보기

찾았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 정보



다양한 일자리와 취업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박람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이력서 작성 요령과 적성검사까지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구직자는 물론 예비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예정된 취업·일자리 박람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정리 편집부



2019년 수도권 혁신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9년 수도권 혁신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구직자들은 민간 채용플랫폼의 중소기업 전용채용관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의 우수 혁신기업의 채용 기회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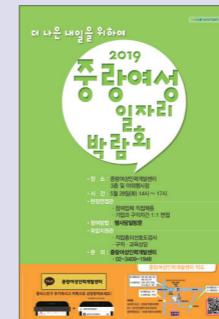
2019 수원시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9 수원시 청년 일자리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수원 지역 약 2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취업정보관과 컨설팅관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력서, 면접 클리닉도 이뤄지며, 이력서 사진 촬영과 적성 검사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게 되었는데요. 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용관과 체험관을 운영하여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모였던 행사를 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인기업 250개사가 참여 예정으로 박람회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대학생 등입니다.



2019 V-UP 청년일자리박람회 V.2
공연예술 분야의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는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박람회에서는 공연예술 분야 기획자를 위한 직무특강이 진행됩니다. 또한 각 분야 공연기획 실무자들의 취업전략 멘토링도 펼쳐집니다. 채용존과 컨설팅존에서는 취업 상담과 직업정보가 제공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도 이루어집니다.



2019 중랑여성 일자리 박람회
서울시 곳곳에서 여성 구직자를 위한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서울 각 지역에서 열리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 중 중랑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일본유학&취업박람회
매년 봄 개최되는 일본유학&취업박람회가 올봄에도 어김없이 개최됩니다. 호텔, 숙박업과 면세점, IT분야, 전문 기술직, 일반 사무직까지 다양한 분야의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기업체가 방한하며 박람회 현장에서 이력서를 받아 구직자가 희망하는 기업을 사후에 찾아 주는 ‘매칭 프로그램’도 이뤄집니다.

일시 2019년 5월 1~31일
장소 온라인 민간 채용플랫폼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

일시 2019년 5월 23~24일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vension홀
주최 수원시

일시 2019년 5월 28~29일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
주최 KB국민은행

일시 2019년 5월 28일
장소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주최 고용노동부

일시 2019년 5월 28일
장소 중랑여성 인력개발센터
주최 중랑여성 인력개발센터

일시 2019년 6월 1~2일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
주최 사단법인한일협회



환경 분야 新직업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미래 직업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는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거리이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래 직업으로 어떤 일자리가 각광받게 될지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 교육부 <미래직업 가이드북>) / 사진 스튜디오

기후변화 전문가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가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기후변화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대응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과 통계 능력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환경 관련 행정, 기상 서비스, 공공기관(공공 서비스),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중개인



탄소배출권은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나 기업에 정해진 할당량의 탄소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정해진 양보다 많은 양을 배출해야 하는 업체는 필요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하고 반대로 정해진 양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감량한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중개자 역할이 바로 탄소배출권 중개인으로 에너지, 환경공학 관련 전공자들이 도전해볼만합니다.

가정에코컨설턴트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 속 에너지의 절약 방법부터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추천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안내하거나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줄이는 방법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전국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린장례지도사



그린장례(Green Burial)는 자연장(Natural Burial)의 일종으로 '죽은 후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로 기존의 무덤이나 묘비 같은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린장례지도사는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나타난 직업으로 유족들에게 친환경 장례에 대해 설명하고 장례식과 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합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이 더해질수록 그린장례지도사는 더욱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희 
가정에코컨설턴트
(예산군지속가능발전
협의회/충남예산기후
환경네트워크 소속)



가계경제 살림꾼이자 지구환경 지킴이



충북 예산의 1호 가정에코컨설턴트

이경희 씨는 올해로 4년째 가정에코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코컨설턴트는 환경부와 자체, 기후·환경네트워크가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학교·상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소속으로 전국적으로 약 1,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씨는 충남 예산의 1호 가정에코컨설턴트라고 해요. 2016년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정에코컨설턴트로서 첫 자격시험이 있던 해 응시하여 제1기로 발탁돼 활동 중입니다. 속셈학원을 운영하던 이경희 씨는 그린리더로 활동 중인 동료 선생님을 통해 그린리더 활동을 알게 되고 2015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린리더들이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일에 익숙했고 그 장점을 살려 환경교육을 해보자는 생각에 시작했지요.”

에코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선생님

에코컨설턴트는 교육 이수와 시험검정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급수가 나눠집니다. 1종 컨설턴트는 가정·상가·학교를, 2종 컨설턴트는 상가·학교를, 3종 컨설턴트는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해요. 이경희 씨는 1종 컨설턴트로서 가정·상가·학교 모두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 예산의 현 에코컨설턴트로서는 유일하게 가정에코컨설턴트 매뉴얼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에코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선생님이 된 거죠.

“1종이면서 2016년도부터 활동한 컨설턴트에게 컨설턴트 양성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2018년부터 충남지역 컨설턴트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람과 긍지를 갖는 근사한 직업

이경희 씨는 이 일을 시작할 당시 에너지, 전기 등에 지식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하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컨설팅 다녀온 가정의 전기 제품들을 분석하고 소비전력과 효율성을 따져 전산에 입력하는 등 업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개 월이 지나고 지식을 쌓으며 일은 점점 더 수월해졌고 일에 대한 욕심도 생기면서 틈틈이 시도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으며 실력도 쌓은 결과 에코컨설턴트로서 실적도 우수해 2016년과 2018년 2차례 우수컨설턴트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더 전망 있는 직업이 될 거예요. 환경



과 인간은 함께 가야 하잖아요.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근사한 일이죠. 게다가 이 일은 하며 열심히 자격을 갖추면 기후환경 강의나 관련 활동으로 파생되는 일도 많아요. 에너지 관련이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세요.”

[나도 가정에코컨설턴트 도전!]

- 모집 시기
매년 1~3월 / 지역 기후·환경네트워크
- 모집 인원
지역별 상이
- 자격 요건
진단 컨설팅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다음의 기준 중 1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지역네트워크 소속의 중 고급 그린리더
 - 자체, 광역네트워크, 환경관련 단체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환경관련 전문 교육과정 수료자
 - 온실가스, 에너지, 환경 등 관련 업무 1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
 - 대학(교) 환경관련 학과, 동아리 소속 학생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이 인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사내에 적립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퇴직

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사내 적립이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므로 근로자는 체불의 염려 없이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서 ①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과 ②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③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PR) 중에서 알맞은 제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령하는 방법도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급변하는 근로환경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퇴직연금의 가입·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차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대표적인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수급 자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이 중에서 ①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 41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쉽게 말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익이 전혀 없다하여도 구

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구직을 위해서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의 이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폐업 등 강제로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질병,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위 조건이 충족되면 시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차별 없이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입니다. 잘 활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멋진 직장으로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림으로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들

극 | 장 | 간 | 판 | 제 | 작 | 원

1960년대 개봉관이 모여 있는 거리, 어느 극장에 들어가도 요즘 인기라는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극장 간판을 훑어 보았습니다. 어느 극장의 간판이 더 잘 그렸나, 내가 좋아하는 배우와 얼마나 더 닮았나, 따져보는 것이죠. 같은 영화라도 더 많은 관객을 불러오는 차이, 그것은 극장간판제작원의 끝에 달려있었습니다.

정리 편집부



요즘으로 치면 화가이자 광고인

1910년에 서울 종로의 단성사를 비롯한 상설 영화관들이 문을 열면서, 화가들이 극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광고나 포스터만으로 상영작 정보를 접하는 관객들에게 극장 간판은 관객의 발길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극장들은 '미술부'를 따로 만들어 솜씨 좋은 화가들을 초빙했습니다. 극장간판제작원이 된 이 화가들의 임무는 예비 관객의 시선을 잡아끌 멋진 작품을 그려내는 것이었죠. 요즘 이야기 영화 배급사에서 광고나 포스터, 간판을 디자인해 배포하지만, 극장간판제작원들이 활약하던 때 극장 간판은 오롯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을 그려 넣기도 하고, 주인공들의 얼굴을 너른 간판 위에 실사처럼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 배우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파가 되기도 했지요.



P극장의 미술부. 10평 남짓한 제작실에는 얼굴 하나가 어른의 키보다 더 큰 미모의 여배우가 활짝 웃고 있다.

며칠 뒤면 극장 입구에 커다랗게 세워져 길가는 행인의 걸음을 멈추게 할 간판의 마지막 손질에 제작실은 쉴 틈이 없다.

—<경향신문> 1977년 4월 23일

사다리를 타고 배우를 그리다

초창기에는 커다란 종이에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간판에 붙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페인트로 직접 그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극장의 간판은 서너 시간 안에 그릴 수도 있었지만, 가로 길이가 10m를 훌쩍 넘는 대형 극장의 간판은 적어도 사흘은 걸렸다고 합니다. 이전의 간판을 내려 흰 페인트로 바탕을 칠하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색칠하는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극장간판제작원의 품도 많이 들어서 미술부장이라 불리는 베테랑 극장간판제작원의 지휘 아래 분업이 이뤄졌습니다. 능력이 좋은 미술부장은 미술부 신입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국내 영화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극장간판제작원들은 1990년대, 인쇄 및 출력기기의 발달 그리고 극장 구조의 변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단관 극장들이 멀티플렉스(복합관) 극장으로 대체되면서 대형 간판이 설 자리를 잃었고, 컴퓨터와 인쇄기로 찍어내는 플렉스 간판이 그림 간판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100여 명이 남아있던 극장간판제작원들은 2000년대 들어 모두 극장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작품을 극장이 아닌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지만 간판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극장간판제작원의 예술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족 ‘행복 충전’을 위한 가정의 달 추천 콘텐츠



페스티벌

남녀노소
즐거운 축제



춘천마임축제



남원춘향제



취향과 개성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란 쉽지 않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부터 꼬마아이까지 남녀노소 취향 저격의 문화콘텐츠로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세요.

정리 편집부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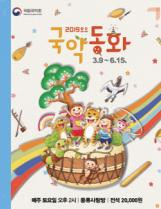
공감백배
가족극



할머니 엄마



토요국악동화



단란한 가족의 비결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과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할머니 엄마’는 사랑스러운 손녀 예은이와 바쁜 엄마 대신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주인공들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숙한 동화에 국악적 요소를 더한 어린이 공연 ‘토요국악동화’도 가정의 달 함께 즐길 공연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5월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를 종이컵인형극으로 풀어낸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무대에 오릅니다.

할머니 엄마

프라임아트홀 5월 26일까지

토요국악동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매주 토요일

도서

가족에게
잘하려면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현장을 추천합니다. 세계3대마임 축제로 꼽히는 ‘춘천마임축제’는 현대마임과 무용극, 광대극과 거리극 등 몸과 움직임 그리고 예술을 융합한 공연 예술의 장입니다. 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춘천시 곳곳에서 공연이 열려 시민들과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마임축제의 현대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남원춘향제’도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습니다. 한복패션쇼와 춘향국악대전, 풍물장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춘향길놀이 사랑체험부스 등 놀이 체험의 기회도 다양해 아이, 어른할 것 없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마임축제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12
남원춘향제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는 배우 봉태규의 두 번째 에세이집입니다. 그는 이 책에 남과 여, 아내와 남편, 출산과 육아, 혼인신고와 결혼 등의 주제에 대해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봉태규의 책이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다면, 양지열 변호사가 쓴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다룹니다.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과 분쟁 사례를 쉽게 설명하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72

2019 May 73

직장인들의 흔한 허리병 요통

허리통증을 일컫는 말인 요통은 매우 흔해서 모든 사람 중 80%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심한 요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질환이지만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요통의 주요 원인과 치료방법,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 최원준(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요통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리적 충격, 즉 외상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더라도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이 생겨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허리뼈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해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이 심하면 작은 충격에도 요추 뼈가 부러지는 압박골절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요추 염좌로,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생합니다. 평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근육이나 인대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위 '빼꼼'하는 경우인데,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무리한 후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인대가 경직된 상태에서는 특별히 기억날 만한 일이 없더라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이미 장기간 허리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탈출증, 다리 쪽에서 먼저 증상

이 외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소위 '허리디스크'인데, 이것은 추간판탈출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추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신경을 누를 때 발생합니다. 허리 부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증상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등 다리 부위의 감각이 이상해지고(저림, 따끔거림, 감각이 둔해짐), 심하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허리가 아프면 곧 '디스크' 문제를 떠올리지만 요추 부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다리 쪽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고 허리가 아프다면 추간판탈출보다는 다른 질환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척추관 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다양한 원인

에 의해서 허리나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마다 적절한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통 예방 위해 평소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습관화

치료방법으로는 적절한 휴식,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비수술적 방법으로 증상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신경압박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리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습관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앓아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습니다. 장시간 앓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닿도록 하고 허리를 반듯이 펴서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생기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관리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줄줄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잡아라! 가입된 보험 다시 살피기

보험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이나 사고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가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도 들게 마련인네요. 지금부터 그동안 미뤄두었던 보험정리를 시작해볼까요? 제대로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됩니다.

정리 편집부

1단계 흩어진 보험증권 한눈에 모아보기

가입된 보험 일괄 정리를 미루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귀찮아서가 아닐지요? 여기 가입된 보험을 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을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물론 청구하는 걸 잊어버려 받지 못한 보험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유지’ 중인 보험을 눈여겨봐주세요. 유지 중인 보험의 실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인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받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고 있다면 준비 끝! 물론 보험증권을 착실히 보관하고 있지 않고 해서 실망하긴 이릅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재발행할 수도 있고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전자 증권 발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보험증권 비교 분석하기

가입된 보험증권을 일렬로 쭉 늘어놓고 이제부터 비교 분석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선 보험 상품의 종류와 보장 내용, 특약 및 면책 조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여러 개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범위와 한도를 따져 더 나은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만기 환급형 보험과 순수 보장형 보험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기 환급형 보험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유용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보험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만기 시 환급 보험금의 가치 등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 목적과 보험료 납입기간, 환급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함이고 연금보험은 노후 자금을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3단계 보험 리모델링하기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은 꼭 필요한 보험만을 남기고 그 외 보험은 재정리하는 건데요. 재정리가 반드시 해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높은 보험의 경우에는 저렴하면서도 유사한 보장의 대체 가능한 상품을 찾아볼 수도 있고, 경제 사정으로 해약을 고민한다면 납입 일시중지나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복되는 보험의 경우에 해약을 하고자 한다면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오래된 보험보다는 최근 가입한 보험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약 후 재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의 중도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보험이라면 분명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신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두루 살펴 이번처럼 재점검하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창밖 풍경, 함께 감상해요

모니터만 뚫어지게 바라보다
문득 바라본 창밖에서
화사한 꽃나무를 발견했다면
깜짝 선물을 받은 듯 하지요.
여러분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무엇이 보이나요?
월간 <내일>에 함께 나눠주세요.



박소라 님

♥ Q ↗

#사무실2층 #휴게공간 #휴식 #커피한잔

김은미 님

♥ Q ↗

#일터밖 #산풍경 #숲과 자연이 함께

황복희 님

♥ Q ↗

#봄 #꽃 #사랑 #봄은 사랑이다 #꽃이 만발 #행복 만발

손정은 님

♥ Q ↗

#사무실 힐링 #미세먼지 없는 날 #산 정상 #탁 트인 창밖

이동곤 님

♥ Q ↗

#양화대교 #여유로운 시간 #감성 듣는 풍경

6월호 주제

열심히 일한 나이 흔적, 자랑해요!

회의기록이 빼곡히 담긴 수첩, 일정이 채워진 모바일 스케줄러, 포스트잇 가득 붙은 모니터, 수년째 쓰는 넓은 다이어리 등 하루하루 성실한 내 모습을 자랑하세요. 월간 <내일>이 함께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 ① 6월호 내일스타그램 주제를 확인한다.
- ② 주제에 맞는 장면을 발견하면 칠각 사진을 찍는다.
- ③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짧은 사연과 함께 전송 한다. moel2019@naver.com
- ④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이메일에 반드시 기재한다.

* 멋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선별해 다음호 지면에 공개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열어갑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는 UN의 전문기구입니다.
이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이 비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개 ILO 핵심협약은 187개 ILO 회원국 중 144개국이 모두 비준하였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와 성과, 전환사례를 응모해주세요.



공모 주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공모 대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 분야

	영상	파일 형식 mp4, wmv, avi 종 택 1 해상도 1280*720 pixel 이상 분량 2~3분 내외 (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 가능)
	수기	파일 형식 MS 워드(doc/docx), 한글(hwp) 종 택 1 분량 A4 2쪽 내외 1,200 ~ 3,000자 (이해를 돋기 위한 사진 파일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가능, 국문만 제출 가능) 1인 또는 1팀 당 1개 분야에 1개 작품 응모 가능

접수 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구글 폼)
<https://bit.ly/2IV7liq>

공모 기간

2019.04.29(월) ~ 05.23(목) 25일간

당선작 발표

2019년 6월 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 내역

각 부문별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여
최우수상 | 한국노동연구원장상 수여

구분	당선 작품 수	영상 부문	수기 부문
대상	2점(부문별 1점씩)	200만원	100만원
최우수상	2점(부문별 1점씩)	100만원	50만원
우수상	4점(부문별 2점씩)	50만원	20만원
장려상	6점(부문별 3점씩)	20만원	10만원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세요!

공모전 운영 사무국 번호 | 070-8633-4979 시간 | 09:00~18:00(월~금요일 운영)

Quiz

4월호 퀴즈 정답 장애인 고용장려금

4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강주찬(부산 해운대구)

문계숙(서울 중랑구)

박정숙(서울 송파구)

박혜정(서울 도봉구)

배소영(경기도 안산시)

송동준(부산 남구)

윤성근(서울 성북구)

이미연(서울 중랑구)

이춘임(경기 포천시)

홍경석(대전 서구)

월간 <내일> 5월호 퀴즈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이 250만원이며 3개월간 최대 7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1. □□□□□□□□□□□ 10글자입니다.

힌트 2. 지금 바로 13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독자와 함께 만드는 월간 <내일>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알고 싶은 정책, 읽고 좋았던 기사,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독자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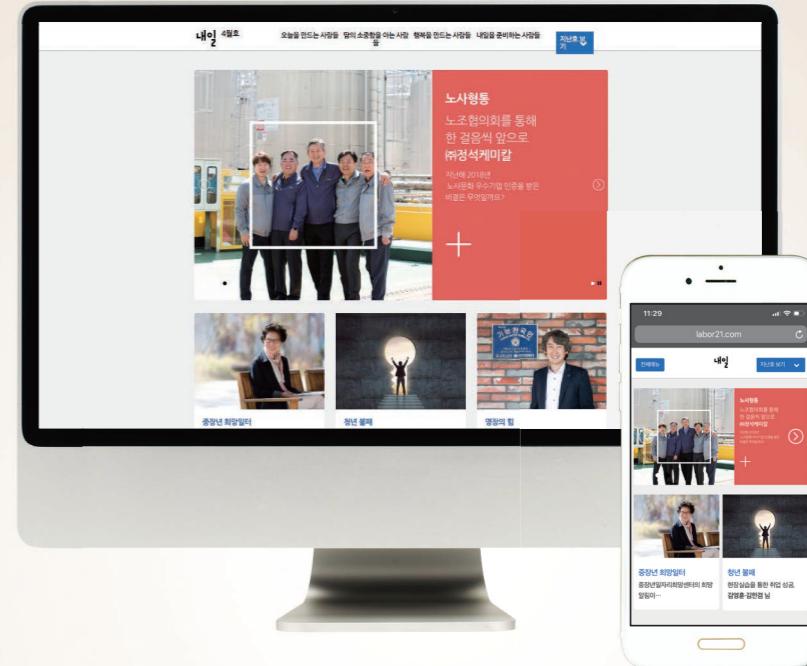
회사나 기관에서 월간 <내일>을 우연히 만나셨다면, 원하시는 주소로 매월 편하게 받아보세요.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반영돼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2. 웹진(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 주소를 적어 주실 때, 빌라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